

2016 연구과제 요약보고서
www.idi.re.kr

【정책연구과제】

**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
및 운영 방안**

배 은 주 연구위원(도시경영연구실)

발행개요	연구진	배은주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(032-260-2678, bej@idi.re.kr)
	배부처	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도서관정책팀, 미추홀도서관
	열람방법	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실, 홈페이지(www.idi.re.kr)

연구 요약

I. 연구개요

- 인천시공공도서관(인천시립 8개 도서관과 인천시교육청 운영 8개 도서관)의 수장공간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증가하는 장서량의 관리 및 인천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을 위하여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이 필요함.
- 본 연구는 인천시립 8개 도서관과 인천시교육청 운영 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을 진단하고 적절한 건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- 2016년을 기준으로 인천시공공도서관 16개관의 자료보존 실태를 조사하고, 향후 2027년까지의 장서증가량 및 수장공간부족률을 추정하여 2027년 기준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규모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.

II.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수장부족 현황

- 공동보존도서관은 이론적으로는 수장공간 부족 문제 해결, 다른 공공도서관의 접근이용 편의성 제고, 자료의 보존수명 연장을 위하여 필요함.
- 법적으로는 도서관법과 인천시 관련 조례에서 도서관 자료의 보존 업무를 대표도서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함.
- 실제적으로는 2027년 시립도서관들의 수장공간부족률이 평균 약 60%가 되고 교육청 운영 도서관들의 수장공간부족률은 평균 141%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공동보존도서관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.

〈표 1〉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소장률과 소장공간 부족률 추산

(단위: 권, %)

구분	한계수장 책수(권)	보유 도서수(권)	수장률 (%)	수장공간부족률 추산(%)			
				'17	'20	'25	'27
미추홀	749,101	388,666	51.9	45.0	28.5	-10.5	-31.5
청라호수	139,478	28,696	20.6	69.9	46.6	-5.2	-37.9
청라국제	90,909	20,187	22.2	72.1	50.4	2.4	-27.9
영종하늘	171,067	14,943	8.7	86.8	76.5	53.7	39.3
송도 국제기구	38,850	10,372	26.7	53.1	16.7	-63.9	-114.9
수봉	108,225	77,283	71.4	13.0	-20.9	-109.2	-160.6
영종	70,263	81,860	116.5	-46.7	-98.4	-228.4	-301.7
율목	50,949	52,821	103.7	-28.2	-83.0	-231.3	-320.0
북구	168,592	276,675	164.1	-81.0	-104.1	-149.6	-170.5
중앙	222,429	307,119	138.1	-43.6	-46.2	-50.7	-52.5
부평	161,916	255,428	157.8	-61.6	-75.1	-100.0	-111.0
주안	207,230	269,744	130.2	-39.1	-53.3	-80.3	-92.4
화도진	126,982	199,689	157.3	-61.9	-74.9	-98.8	-109.3
서구	130,923	255,610	195.2	-100.7	-119.3	-154.2	-169.7
계양	157,043	206,320	131.4	-50.1	-87.6	-171.8	-215.2
연수	151,544	215,600	142.3	-62.8	-106.9	-208.2	-261.5

주1: 한계수장책수, 보유도서수, 수장률은 2016년 6월 말 기준

주2: 수장률 = (보유도서수 ÷ 한계수장책수) × 100

주3: 수장공간 부족률 = 100 - (증가도서량 ÷ 한계수장책수 × 100)

III.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

- 공동보존도서관의 기능 중 자료보존, 자료이용, 자료수집 및 발굴에 중점을 둘 경우 1개관(집중형) 건립이 더 유용하며, 견학이나 기획전시 등 교육적

기능에 중점을 둘 경우 지역별로 여러 개관(계층형이나 분산형)을 건립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다양성 면에서 더 유용함.

- 인천광역시의 현실을 고려한 실제 공동보존도서관의 건축 방안은 다음 세 가지 안으로 압축할 수 있음.
 - 첫째, 미추홀대표도서관 부설 별관형으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현재 미추홀 대표도서관의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별동건물을 지어 공동보존서고를 신축하고, 이를 미추홀대표도서관과 연결하여 미추홀대표도서관이 운영·관리함. 건립비와 운영비 절감, 운영과 관리·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으나, 이 경우 대표도서관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함.
 - 둘째, 시유지에 대표도서관을 신축하여 공동보존서고를 부설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미추홀대표도서관이 인천광역시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여 대표도서관을 아예 새롭게 신축하면서 공동보존서고를 부설하여 운영함으로써, 현재 협소한 대표도서관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대표도서관과 공동보존서고가 동일 건물에 있어 운영과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시유지에 공공일반도서관으로 건립할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도 가능하여 건립비가 매우 절감될 수 있음. 이 경우 대표도서관으로 신축하는 것이니만큼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야 함.
 - 셋째, 시유지에 공공일반도서관으로 건립하여 공동보존서고를 부설하는 방안으로 공공일반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의 시유지에 공공일반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이에 공동보존서고를 부설함으로써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건립비가 절감될 수 있고,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일반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. 이 경우 공공일반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해야 하므로 미추홀대표도서관과 공동보존서고의 거리가 멀수록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음.
-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규모는 2027년 기준 공공도서관 16개관의 한계수장초과도서량 중 중복률 30%를 제외한 약 1,944,510권을 수장할 수 있는 규모로, 이동식 밀집서가의 기준도서량 1㎡당 400권과 일반서가의 폐가제서고 기준 1㎡당 170권 수장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 서고면적은 약 6,834.4㎡로 산출됨.

〈표 2〉 인천시 공동보존도서관 수장책수 및 서고면적 산출

구분	이동식 밀집서가(모빌랙) 적용(1㎡당 400권 기준)
수장책수	밀집서가 수장책수 : $1,944,510 \times 0.7 = 1,361,157$ (권) 일반서가 수장책수 : $1,944,510 \times 0.3 = 583,353$ (권)
서고면적	밀집서가 : $1,361,157 \div 400$ (권) = 3,402.8925 ㎡ 일반서가 : $583,353 \div 170$ (권) = 3431.4882 ㎡
계	6834.3807㎡

-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법률적으로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에 부여되고 있으므로, 미추홀대표도서관이 되는 것이 최적이며, 공동보존도서관의 실제 운영을 위한 합의체 정책결정기구는 참여 도서관들과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공동보존도서관 자료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공동보존도서관에 모두 이관하는 ‘완전이전형’이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, 일부 귀중 자료에 한하여 참여도서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‘절충형’도 고려해 볼 수 있음.
- 자료이관의 범위는 도서 및 잡지 위주의 인쇄자료가 주 대상이며, 고문서, 귀중서, 희귀서, 향토자료, 기타 재산적·보존적 가치가 높은 자료 등이 이관 범위에 해당됨.
 - 이관자료는 자료의 이용도, 물리적 상태, 실물보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자체보존, 매체변형, 제적폐기, 이관보존 등을 취사하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.
- 자료이용서비스로는 서지정보 검색지원서비스, 온라인 참고정보서비스, 내방객을 위한 열람서비스, 원격이용자를 위한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.
 - 자료이용권한 범위에는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범위(구립도서관 포함 여부)와 내방객 열람 서비스 제공 범위(인천시민 이외 개방 여부) 등을 결정하여 운영해야 함.

IV.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

- 향후 인천광역시의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.
 - 첫째, 공동보존도서관은 참여도서관들이 보관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이관 받아 단순히 보존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향토자료나 인천지역의 사료, 고문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할 필요가 있음.
 - 둘째, 공동보존도서관에서 발굴하고 수집한 지역 사료 및 고문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, 또한 발굴된 자료를 기획·전시하고,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, 인천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체험해 보는 공동보존도서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, 대중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 - 셋째, 향후의 모든 자료를 보존할 수는 없다는 점과 디지털화 경향을 고려하여 공동보존도서관의 규모를 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, 향후 건립되는 신규도서관에는 보존공간을 함께 건립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함.
 - 넷째,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을 위하여,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,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의 정비, 건물의 설계 및 건축 등에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.¹⁾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(가칭) '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'를 구성하여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각계 전문분야의 인력이 힘을 모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1) 노지현 외(2013). 부산시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.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.



이 보고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idi.re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